

대외협력국 '역동하는 도정 구현'

도정지원 3대 목표 설정... 국제교류 활성화·핵심과제 홍보·협력과 자원봉사 활성화

전북도 대외협력국이 '2020 전북대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2017년 비전'을 '도민역량 결집으로 역동하는 전북도정 구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대외협력국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및 다변화한 국제교류 활성화, 도정 핵심과제에 대한 전략적 홍보로 브랜드 가치 제고, 대내외적 협력과 자원봉사 활성화로 활력있는 도정지원 3대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2023 세계잡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대륙별 국가별 표시 분석을 통해 적극 홍보가 필요한 지역·나라를 파악하고, 주요인사 맨투맨 홍보를 통해 새만금을 적극 어필하기로 했다.

또한 '대륙원정대'를 운영해 6개 지역 160여개 주요 회원국에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대원을 중심으로 원정대를 파견한다.

이들은 세계잡버리를 준비하는 새만금의 비전과 준비사항을 홍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전략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5월에는 '새만금 국제 유스 캠퍼'를 개최한다.

아프리카 브랜치를 비롯한 50여개국, 1000명이 넘는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참석하는 이 행사에서 새만금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널리 홍보해 새만금이 잡버리의 최적지임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대외협력국에서는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새만금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인양 대국민설명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전북방문의 해 및 전라도 천년을 앞두고 집중 홍보를 통해 전북도 위상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종합홍보영상에 개편에 들어간다.

민선6기 반환점을 돈 현 시점에서 전북도의 문화·관광·경제·비전을 녹여낸 대표 홍보 영상물을 제작·홍보해 도민이 공감하는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생생TV'를 비롯한 지상파 오프라인 및 블로그·SNS 등 온라인, 웹툰·카드뉴스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매체 등에 풍부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맞춤 홍보해 역동적인 도정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도민이 다양한 문화와 다름을 존중하고,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 융화를 위해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문화마을화당 운영 등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강화하고, 학력취득 및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다문화가족의 양육·생활 맞춤형 서비스 및 청소년 진로지원도 진행한다. 다문화 인식개선 및 교류를 위해 문

화교육지원 사업과 다문화어울림축제 개최하고, 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고항나들이지원 등 갈등예방과 권익 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원택 대외협력국장은 "지난해는 삼라농정·토탈관광·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북 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한 해였다"면서, "새해는 전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도약의 시기로 대외협력국 전 직원은 '절분근사'의 자세로 도민들의 신뢰와 협조를 얻어 역동하는 전북도정 구현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설맞이 도지사인증상품 특별판매전

2월 26일까지 KTX 전주역 광장에서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도지사인증상품 등 전북 우수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특별 판매전이 열린다.

전북도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도지사인증상품기업협의회와 함께 KTX 전주역 광장에서 귀성객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도내 우수기업 30여개사(200여개 제품)가 참여하는 설맞이 도지사인증상품 특별 판매전을 개최한다.

또한, 전주 롯데백화점 지하 식품매장에서 지난 6일부터 20일 간의 특판행사에 들어가 도지사인증상품 등 100여개 지역 우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도지사인증상품을 포함해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전북 우수상품 300여

개 품목으로 구성된 도내 각 시군별 특색 있는 상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번 특별 판매전은 시중가보다 10~20%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현장에서 시음·시식행사, 무료 택배서비스·퀵발송 등 각종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온라인 유통채널인 E-POST(우체국쇼핑몰), CJ오쇼핑에서도 도내 중소기업 160여개사가 참여하는 우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 할인, 전북상품 구매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 모바일 할인쿠폰 발송 등 온라인 특별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도지사인증상품은 현재 (쥬중년제과 우리밀 초코파이 등 48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인재용 기자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희망자 모집

전북수산기술연구소, 2월 1일~28일까지

전북수산기술연구소는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

이번 육성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 기반 조성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어선어업(어선 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증양어업(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구입 및 양식기자재 구입, 종묘 및 친어 구입 등), 수산물 가공, 수산물 유통 등이다.

지원조건은 정부용자지원으로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1인당 지원한도는 어업인후계자 1억원, 직업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이다.

단, 실제 신청가능액은 상기 대출한도에서 타 정책자금 및 전(전)단계 대출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지원 신청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해 어촌정착지역(정책예정지역 포함)을 관할하는 전북수산기술연구소 내 3개 부서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수산업경영인 최종 선정은 오는 3월 중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인재용 기자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테마파크 운영 성과

방문객 8만여명 돌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전문인력양성사업 등 통해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테마파크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간 8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가족단위 방문객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테마파크 운영실적으로 방문객 8만여명 돌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700여명 참여,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1,000여명 교육이 수 등의 성과를 이뤘다.

SNS를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부안단지 찾은 방문객이 8만여명이 다녀갔으며 그 중 32% 이상이 전북이 아닌 타 시도에서 방문을 한 것으로 나타나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테마파크가 널리 알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북도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체험프로그램을 수주해 오렌티에이션, 전문가 특강, 직업체험, 테마체험관 관람, 체험키트 조립 등을 진행했다.

특히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부의 '친환경 과학캠프'와 한국에너지공단 '미래에너지전문가캠프'를 운영했으며, 입주연구기관인 전북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전했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참여해 인력양성사업은 국비 12억원을 포함, 총 16억원이 투

입돼 1,000여명의 인력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상징인 높이 70m의 1.65MW대형풍력발전기는 부안단지를 찾는 관람객에게 풍력발전설을 체험할 수 있는 인기 한 볼거리로 제공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랜드마크화가 되어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국가 공모과제 유치와 과학캠프 운영, 새만금권역과 연계한 국내 굴지의 시험평가 산업연구 집적화 단지로 육성해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도록 현장체험 교육장으로 확대해 국민 누구나 찾는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상반기 정기 전보인사 단행

6급이하 182명 규모

전북도가 상반기 정기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2020년 대도약 초석을 다지고 세계잡버리대호 유치 등 10대 핵심 프로젝트 중점 추진을 위한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고려해 6급이하 182명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연속성을 고려해 전

보를 최소화하고 개인별 희망부서를 토대로 개인과 조직 역량을 최대한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승진 내정자, 현부서 1년6월 이상 근무자 중 전보 희망직원, 육아·출퇴근 등 개인 인사고충 등의 사유로 전보를 희망하는 직원, 현부서에서 4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을 전보 대상으로 했다. <인사 명단 전주매일 홈페이지 참조> /인재용 기자

사람을 찾습니다

- ▲박진현(550430-1*****) - 남
- ▲박종천(640102-1*****) - 남
- ▲박형진(671025-1*****) - 남

송정규(300310-2*****)씨가 그의 세 아들인 박진현, 박종천, 박형진씨를 애타게 찾습니다.

**주소: 전북도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32번지

**연락처: 010-3903-8619(송정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